소상공인 ‘에너지비용 절감 지원’ 내년 2배이상 늘린다

산업부, 에너지 효율혁신 협의회
노후 냉난방기 교체 지원 확대
‘소상공인 경영 응원 3종 패키지’
저리 정책자금 대출 확대 등 강화

정부가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을 내년에는 더욱 폭넓고 두텁게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주요 업종별 협단체,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에너지 효율혁신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노후 냉난방기 교체’,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등 현재 추진 중인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실적을 점검하고, 내년 사업 추진에 대한 업계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에너지비용 절감을 포함한 ‘소상공인 경영 응원 3종 패키지’를 내년 예산안 20대 핵심과제로 지정해 집중 지원한다. 이에 따라 내년 고효율 냉방기기와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지원 사업은 올해보다 2배 이상 확대된다. 소상공인 경영 응원 3종 패키지에는 저리 정책자금 대출 확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강화가 포함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12만명에게 인당 최대 500만원 절감 효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응원 3종 패키지 효과

	지원내용	수혜인원	인당절감효과	지원규모
에너지비용	고효율냉난방기 4.5만 대 냉장고 문 달기 1.5만 대 수열히트펌프 등 0.4만 대	6.4만명	10만원	1100억원
금융비용	대환대출 (11%→4% 수준)	1만명	390만원	5000억원
	경영안정·재해복구자금	1만명	66만원	3000억원
보험료	고용 보험료 최대 80% 지원	4만명	40만원	100억원
합 계		12.4만명	506만원	9200억원

자료/산업부

노후 냉난방기 교체 지원사업은 이달 13일까지 총 1만1300건 접수됐고, 4610건이 교체를 완료했다. 이 중 7월에 교체 완료된 110개 매장을 분석한 결과 8월 청구분 기준 전기사용량이 전년 대비 평균 2.8%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고, 교체가 이뤄지지 않은 매장과 비교시 약 14.2% 절감 효과가 있고, 약 231키로와트시(kWh)의 전력사용량과 요금 4만2000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사업도 지난달 7일부터 식품매장을 중심으로 신청 접수가 이뤄지고 있으며, 추가 지원 대상 발굴을 위해 편의점과 주요 식품업체 등을 대상 홍보도 지속 추진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 예산 정부안에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 예산이 확대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 400억원을 포함해 내년 사업예산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집행방안에 대한 참석자들 간 논의도 이뤄졌다.

이원주 에너지정책관은 “고효율기기 지원사업이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통한 경영안정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2024년 예산안 20대 핵심과제에 포함된 소상공인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해 업종별 특화품목 발굴 등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韓-스리랑카 고용노동분야 협력 추진

이정식 장관, 총리·국회의장 면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14~15일(현지시간) 스리랑카를 방문해 양국 간 고용노동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외교활동을 펼친다.

14일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산업현장 인력난으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의 도입·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용허가제 송출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이번 방문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방문 첫날 디네쉬 구나와르데나 스리랑카 총리 등 주요 인사들과 면담한 자리에서 고용허가 확대, 개발협력을 위한 공적개발원(ODA) 사업 활성화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그는 “이번 면담을 계기로 중요한 우방국인 스리랑카와의 고용노동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15일에는 마힌다 아베와르다나 국회의장과 만나 고용허가제 등 양국 고용노동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스리랑카 의회의 관심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서 근무했던 수다스(국내 방송 및 언론사 인터뷰 참여) 등 귀국근로자들과 만날 예정이다. 한국에서의 근무경험과 귀국 후 성공사례, 건의사항 등을 청취한다. 향후 고용부는 귀국근로자 모범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 고용허가제 운영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 밖에 스리랑카에서 올해부터 시행 중인 뿌리기업 기능특화 훈련사업의 교육훈련 기관을 방문한다. 이 장관은 한국어교육을 받는 훈련생들을 만나 격려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환경부, 청년 창업교육·멘토링 등 지원

녹색인재양성 교육 기회 제공
융자·펀드 통한 자금 지원도
청년 관련 예산 5347억 책정

환경부가 오는 16일 ‘청년의 날’을 맞아 창업지원과 녹색인재양성 교육 기회 제공 등 강화된 청년 일자리 정책을 발표했다.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에 강화된 정책은 첫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아이디어 발굴과 창업교육·상담(멘토링)·진단(컨설팅) 등 사업화 지원 과정을 제공한다. 또 융자와 펀드를 통한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환경부

둘째, 청년들의 녹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 수요 기반의 특성화대학원 및 특성화고를 지정·운영하고,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등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한다. 또 청년 견습생(인턴)과 세계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 견습생(인턴) 참여를 통해 채용기회를 확대한다.

셋째,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청년보좌역(1명) 채용하고 2030자문단(2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청년보좌역은 ‘19~34세 청년’이 채용 대상이며 ‘전문임기제 공무원 다급’으로, 15~25일 지원 가능하다. 채용공고문은 환경부 누리집(me.go.kr)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gojob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문단은 20대와 30대가 중심이 돼 청년세대의 인식을 청년보좌역에게 전달한다. 보좌역과 함께 정책 제언, 정책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하게 되며 올해 하반기 중 채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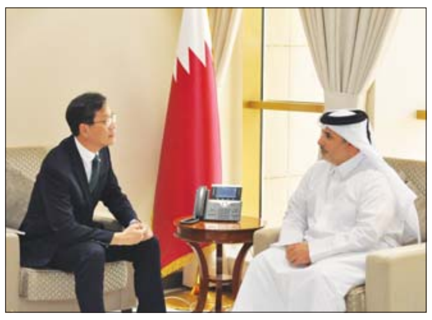
환경부는 내년도 청년 관련 예산으로 5347억7100만 원을 책정했다. 올해 대비 38% 증가한 규모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녹색산업 유망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창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올해 열린 환경산업 일자리박람회(5월16일)와 일자리축제(6월26일)와 같은 양질의 취업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韓-카타르 스마트농업 투자·교류 ‘맞손’

한훈 차관, 카타르 자치행정부 장관 면담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13일(현지시간) 카타르에서 알 수베이 카타르 자치행정부 장관을 면담하고 있다. /농식품부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3일(현지시간) 중동 카타르에서 알 수베이 카타르 자치행정부 장관을 면담하고, 지능형농장(스마트팜) 투자 활성화 등 스마트농업 분야에서 상호 발전적인 관계를 구축하기로 약속했다.

카타르는 전통적으로 농산물 수입량이 많은 국가이나 최근 식량안보전략을 수립하는 등 식량 자급률 향상을 추진하고 있어, 한국 스마트농업 분야의 진출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한 차관은 스마트농업 분야의 국내기업이 카타르에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투자 활성화 및 경제실무단 교류 등 협력을 요청하고, 한국이 도하 국제원예박람회에서 스마트농업 기술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알 수베이 장관은 한국의 도하 국제원예박람회 참가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한국의 우수한 스마트농업 기술력을 토대로 양국 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답했다.

한 차관은 “카타르는 온실 시장 규모가 2027년까지 약 4억 달러 규모로 예상되는 등 스마트농업 수출이 유망한 국가 중 하나”라며 “앞으로 스마트농업과 관련한 양국 간 협력 과제를 지속적으로 진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차상근 기자 skc8472@

회원가입 한 번에 어디서나 전기차 ‘충전’

‘전기차 이음’ 서비스 업무협약

환경부가 14일 국내 86개 전기차 충전사업자와 충전기 로밍시스템인 ‘전기차(EV)이음’ 서비스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기차 운전자는 ‘로밍’을 통해 각 충전시설 사업자의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도 충전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이는 지난 6월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전기차 충전기반(인프라) 시설 구축확대 및 안전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 중 하나이다. 협약식은 서울 중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개최됐다.

환경부는 “단 한 번의 회원가입으로 전국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 편의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협약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운영하는 충전사업자 86곳이 참여했다. 이들은 현재 국내 전체 충전기의 99.8%(25만5100기 중 25만4600기)를 운영하고 있다.

운전자는 개별업체마다 충전 전용 카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회원가입만 하면 추가 조치 없이 이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충전기 로밍시스템에 대해 한글명을 공모(올해 7월24일~8월7일)한 바 있고, ‘전기차이음’이 선정됐다. 충전하는 동안 ‘전기차-충전기-사용자’를 하나로 이어주고 충전 편의성을 높여 대중화를 앞당긴다는 희망의 의미가 담겨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에 더해, 실물 충전카드를 소지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모바일 회원카드와 앱지갑 개발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농진청 ‘스마트강소농 추석 선물전’ 진행

24일까지 온라인상점 ‘레알리마켓’

농촌진흥청은 네오게임즈와 협력해 15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상점 ‘레알리마켓’에서 ‘스마트강소농 추석 명절 선물전’을 연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농업인의 정성이 담긴 실속있는 선물을 주제로 전국 15개 지역 강소농이 생산한 2만~6만 원 대의 농산가공품을 선보인다.

주된 상품은 ▲전통 과자(한과, 정과, 전병, 양갱, 편강 등) ▲꿀·청·차(벌집꿀, 아까시꿀, 감로꿀, 오미자청, 매실 원액, 여주차, 도라지차, 우엉차, 생강차 등) ▲전통 장·기름(고추장, 된장, 간장, 참기름, 들기름) ▲과일·버섯(샤인머스켓, 표고버섯, 곶감, 녹각영지진액 등) 등이다.

‘레알리마켓’은 네오게임즈의 온라인 농산물 상점으로 농진청은 지난해 2월 국내 육성 품종(국내 재배 포함) 농산물과 가공품 등을 홍보, 판매하고 있다.

조은희 농진청 기술보급과 과장은 “이번 명절에 우리 농산가공품 선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 집중호우와 불볕더위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낸 농업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차상근 기자